



Market Index / 25일

코스피지수 ▼ 2710.65 -48.06 | 코스닥지수 ▼ 797.29 -16.96 | 유가(WTI, 달러) ▲ 77.59 +0.63 | 환율(원) 1USD 1409.54 100¥ 923.10 | 팔매 1361.06 891.36 | 1EUR 1530.56 100¥ 200.74 | 팔매 1470.84 181.64

위기의 제주 기업... 연체율도 전국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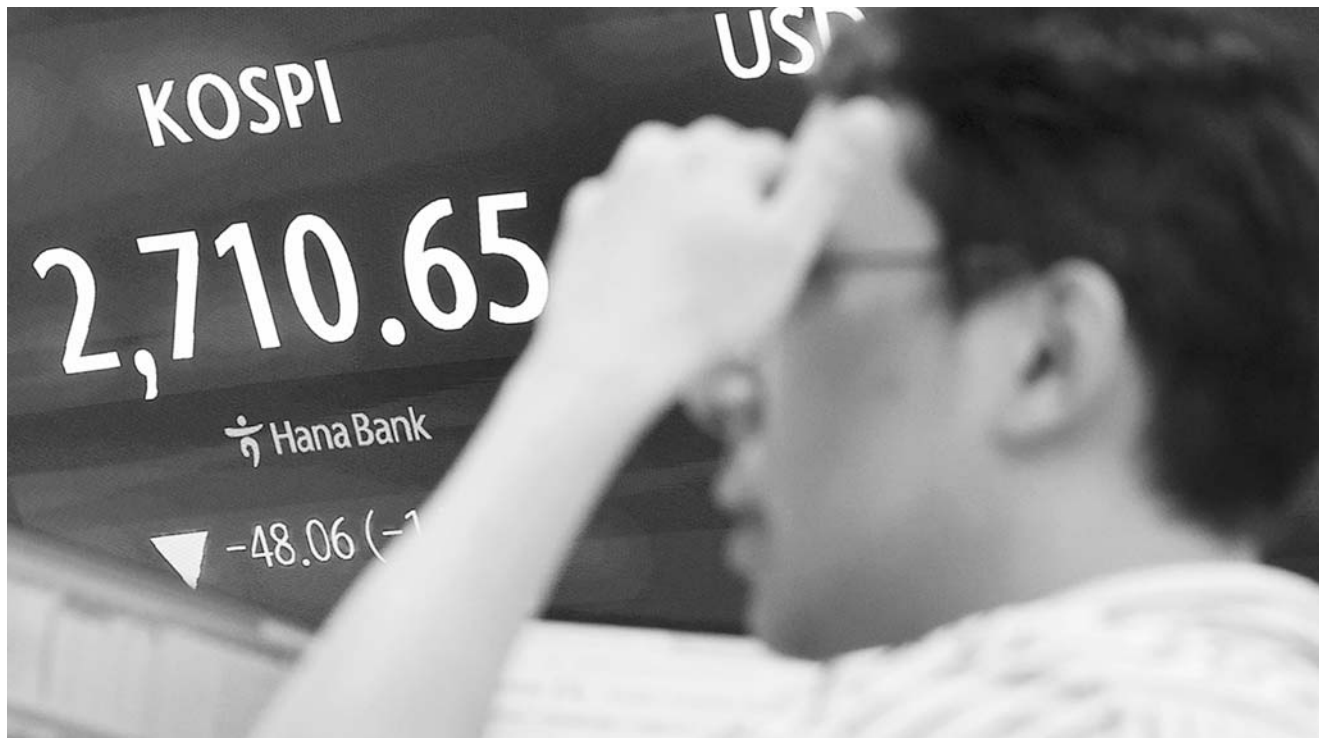
5월말 0.93%로 전국평균 0.58% 웃돌며 가장 높아 소비 침체에다 고금리 등 맞물리며 경영난 심각 가계대출 연체율도 0.84%로 가장 높은 수준 보여

소비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이 맞물리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제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내 기업대출 연체율도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5월 중 금융기관 여신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 예금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86%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연

금등한 후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경기침체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씀씀이를 줄이며 내수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코로나 19 대우행기보다 상승하면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말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3%p 하락한 0.8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전국 평균(0.42%)에 견줘 갑절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5월 말 도내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39조414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조39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5조6047억원으로 3.7%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조7882억원으로 4.5% 늘었는데, 이는 아파트 신규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기타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8.0% 감소한 9조8164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수신 잔액은 40조83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 증가했다. 예금은행과 비예금금융기관의 수신 잔액이 각각 15조6637억원, 25조1756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 4.2% 늘었다.

3개 공기업-제주은행 '상생협력기금 협약'

제주지역 3개 공기업과 제주은행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ESG경영 기업을 적극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이하 '도내 3개 공기업')와 제주은행은 25일 제주은행에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ESG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도내 3개 공기업과 제주은행은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도내 소상공인, ESG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15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가치상생협력대출'을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산출되는 기업별 여신금리에서 3.0%포인트(p) 감면 혜택을 1년간 받게 된다. 제주가치상생협력대출은 오는 8월부터 도내 제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코스피, 1.7% 내려 2710대 후퇴 25일 오후 서울 증권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48.06포인트(1.74%) 내린 2710.65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96포인트(2.08%) 내린 797.29에 장을 마쳤다.

제주 맥주보리 우량종자 국립종자원 검사 통과

농업기술원이 생산한 2024년산 맥주보리 원원종과 원종이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를 통과했다. 25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주

산 맥주보리 종자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분함량, 발아율 등 9개 항목 모두 기준 이상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이에 원종·보급종의 생산단계를 거쳐 내년 농가에 보급될 예정

이다. 제주 농산물원종장은 주요 작물의 원원종, 원종 등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 보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콩, 보리의 정부보급종과 감자, 마늘, 메밀 우량종자를 차질 없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소득 향상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추가연계증권·기타과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개인이 과생결합증권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은 과생결합증권의 특성별로 그 과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먼저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 살펴보면, 추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추가지수 ELW를 판매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최중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후에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연계증권(ELS)과 기타 과생결합증권(DLS)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상장지수증권(ETN)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ETN의 실물양도 방법으로 거 래하여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N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과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기본세율(6.6%-49.5%)을 적용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범위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모든 소득은 자산 순증가설에 입각하여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과세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점검 공정위·금감원 진상 파악 착수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신속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현장점

검에서 정산지연 규모 등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현황과 이용자 환불요청과 지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복 의무 및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정소식: 피로회복 숙취해소·항산화까지 ★즐거이온 여름나기 꿀꿀이 도와드릴게요! (웃꿀 출하기간: 8.1.-9.15.까지) 2024년 8월 1일 제주 버스노선이 개편됩니다. 새로운 노선체계 이렇게 개편됩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제주도내 농어가가 든든하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JDC, 도가 함께 합니다.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추가 접수 신청대상: 도내 미취업 청년(15-39세) 및 중장년(40-64세)을 신규 채용한 1인 이상 도내기업(일부업종제외)...

제주시정소식: 「세이(SAY)청정,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기간: 매주 수요일 14:00-17:00 장소: 제주시청 제2별관 1층 주차과 주관 및 주최: 주택과 내용: 건축사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무료 건축상담실...

제주시정소식: 운영기간 - 8월: 2024. 8. 6.(화). ~ 8. 29.(목).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 8시 40분)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점검 공정위·금감원 진상 파악 착수